

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본 동의안은 안산시장이 2017년 3월 30일 제출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

1. 제안이유

-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치매 가정의 사회적·경제적·정신적 부담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
- 장기요양등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 서비스 신청 인원의 약20%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사회 치매서비스가 부족
- 따라서 치매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무를 전문성 있는 노인전문병원(공공) 또는 치매협약병원에 위탁함으로써 치매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사업
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
- 운영인력 : 총 3명 내외(간호사1,작업치료사2)
- 운영예산 : 104,180천원 (도27,900천원 시76,280천원)

총예산				설치비				운영비			
총계	도비 (34%)	시비		소계	도비 (50%)	시비		소계	도비 (30%)	시비	
		시비 (66%)	추가			시비 (50%)	추 가			시비 (70%)	추가
104,180	27,900	55,100	21,180	15,000	7,500	7,500	-	89,180	20,400	47,600	21,180
				설치비 및 공사비				인건비 및 운영비 등			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년7개월(2017.6.1.~2019.12.31.)
- 위탁사무 :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
 - 치매환자 인지 이음 프로그램(건강,관계,지역사회,가정,습관)
 - 치매환자 인지 자율 프로그램(신체활동,작업,원예,음악,영화등)
 -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
 - 지역사회 활동참여 장려(지역사회 내·외부 활동 월1회이상 제공)
 - 기타 안산시장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소요예산 : 104,180천원
(단, 사업예산은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3. 주요 검토사항

가. 운영상황

- 가족사랑이음센터 사업은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문제가 됨에 따라
- 경기도에서 시군보건소에 시범사업을 공모하였고 우리시 단원보건소가 시범대상자로 선정되어 도비 34% 시비 66%의 비율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임
- 안산시의 2015년 치매 검진결과는 60세 인구 82,910명중 15%인 12,376명을 검진하여 13.4%인 1,654명이 인지저하자로 나왔고 이중 266명이 치매 확진을 받아 실제로는 더 많은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
- 경증치매환자의 자율인지, 지역사회참여, 활동습관 이음, 치매가족모임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 예정

나. 예산수반사항 검토

- 금년 시범사업에 1억 418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이중 시비 부담은 7,628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임

다. 법령검토사항

- 2012년 제정된 치매관리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고
-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탁대상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

4. 검토의견

- 노령화 사회의 빠른 진전으로 치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것이 예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전대책이 필요하며
- 경기도 시범사업에 안산시 단원보건소가 선정됨에 따라 성과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 예산지원도 계속 지원도 가능
-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유연한 상황대처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